

목포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설치 10년

목포·진도·완도 선박사고 확 줄었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설치된 이후 목포와 진도·완도 등지에서 선박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 관내 관제센터는 목포와 진도·완도 등에 있으며 앞으로 신안 마진도에 해상교통관제 레이더사이트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목포 관제센터는 1999년 죽곡동 해양대학교 뒷산 해발 47m에 설치해 목포항을 거점으로 서쪽방면 불무기도까지 13마일, 남쪽방면으로는 시하도까지 14마일, 북쪽방면으로 15마일에 달하는 해역으로 27개 섬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목포 인근해역의 경우 항로 폭이 매우 좁고 수심이 낮은 데다 리아스식 해안이 많아 항해시 접촉사고가 잦았다. 전국 15개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인건 다음으로 농무(濃霧)가 가



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외항선이 자주 입·출항하고 조류가 다른 곳보다 유난히 심한 해역을 관제하고 있는 진도 관제센터는 진도 서항항을 거점으로 도초도 남단 20.5마일과 대

흑산 동단 34.5마일, 매물수도 남쪽 통항 분리대 30마일까지 40여 개 섬 사이를 통항하는 선박들과 안전항해를 위해 고신한다. 진도관제센터는 2006년 설치됐다.

또 섬들이 제일 많은 완도 관제센터는 2004년 문을 열어 완도항을 기

점으로 소덕우도 북단에서 어룡도 북단까지 35마일, 소모도 남단 7마일 등 통항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3개 지역에 통항 분리대 30마일까지 40여 개 섬들이 일년 내내 휴무없이 하루에 200~300회 통항하는 선박들과 고신

하면서 근무한 탓으로 최근 안전사고가 급감하는 추세다.

이들은 화장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개소당 30억~4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운영, 해양교통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1999년 목포 VTS가 설치되기 전 하루 5건의 안전사고가 설치 후 1건으로 줄어들었고, 진도 해역에서는 18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완도 역시 VTS 설치 전후 13건에서 5건으로 줄어드는 등 대조를 보였다.

김삼열 목포 항만청장은 "해양교통사고를 줄이고 각종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VTS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 고위험지역의 현지조사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VTS 확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을 밝힌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태안 기름사고 이렇게 방제했다”

목포해경 해양오염방제 논문 발표

“국내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될 충남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기름 덩어리 방제는 이렇게 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는 7일로 꼭 2년이 된다. 이 사고로 생계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의 고통과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목포해경이 태안 사고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목포해경 해양오염 방제과 조현진 사무관을 비롯해 방제계 소속 직원 등 11명.(사진) 이들은 두 달간 밤샘 작업을 벌여 효과적인 타르볼 오염 방제방법 등을 담은 논문을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에 발표했다.

이달 중순 책으로 나올 논문은 ‘서남해역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에 의해 생성된 타르볼(tar ball) 방제작업’. 이 논문에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원유 유출사고 후 20여 일이 지나자 기름 찌꺼기 덩어리인 타르볼이 조류를 타고 영광, 무안군 등 서남해로 밀려와 김 양식장과 해안 등이 오염되면서 시작된 방제작업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3개월여 동안 바다와 해안에서 그물막 치기, 주위내기, 쓸어담기 등 3가지 방제 작업을 했는데, 사고 당시 계절이 겨울이어서 타르볼이 쉽게 굳어 주위내거나 쓸어 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그물막 치기는 해안이 타르볼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해상에서는 뜰채와 그물 끌기 등 새로운 방법이 동원돼 오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았다고 기술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오염방제 방법을 개선하고, 비슷한 사건 발생시 효과적인 방제사례로 활용돼 오염피해가 최소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시, 전자계약 실적 전국 3위

목포시가 조달청에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조달행정의 정착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4만 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09년 전자계약 실적평가’에서 전국 3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부상을 수상한 다.

공사, 물품구매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종전에는 계약자가 직접 관청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 한 번으로 실시하는 계약으로 복잡한

계약서류와 날인 등을 없애고 공무원과 업체간의 대면접촉을 방지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청렴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만족도 제고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소액의 계약까지도 전면 조달청 전자 계약을 실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계약의 모범을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진도토요민속여행 “내년에 만나요”

대장정 마무리...1만4천500여명 다녀가

주말이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신명나는 ‘우리 가락 한마당’인 진도 토요민속여행이 남도여행의 필수코스 자리 잡았다.

진도군은 지난날 28일 제440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올해 토요민속여행 공연을 모두 끝낸 결과 신종플루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 4천500여 명이 다녀갔다고 4일 밝혔다.

유명 국악인 초청과 ‘장화홍련전’, 구국의 고려전사 ‘삼별초’ 등 특별 공연에 이어 신안군 하의도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넋을 위로하는 ‘진도 씻김굿’ 공연

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4종(강강술래·남도들노래·진도 씻김굿·다시래기)과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5종(북놀이·만가·남도잡가·땃배 노래·소포걸군 농악) 및 진도아리랑 등 전통민속민요의 전승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군은 자평했다.

또 관광객 참여·체험 프로그램은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성과와 거 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상설프로그램으로 지정 받는 성과도 올렸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원산지 위반 식품 철폐’

목포해경 김장철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굴·새우 등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7일까

지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관내 소비자들이 김장용품을 사기 위해 많이 찾는 재래시장, 중·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김장철 인기 수산물인 굴·새우 등 각종 젓갈류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조기·농어·돔 등 횡간을 활어, 마른 생선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군, 장기 교육지원책 마련

KT 정보에듀와 시책개발 협약

신안군과 KT그룹이 지난 3일 ‘장기 교육지원시책개발 민관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이효영 KT목포지사장, 박명선 KT정보에듀 대표는 이날 신안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장기 교육지원계획 초안을 내년 2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신안군이 장기 교육지원시책을 마련하면서 민간 교육전문사와 협력하게 된 것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입시 제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보다 객관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KT정보에듀는 KT가 지난해 3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현재 150여 명의 국내 최고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 사업과 IPTV연계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인건 4기 이후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 아래 교육지원사업을 균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무안·신안 ‘재해예방’ 10억 배정

침수지역 개선 7억원·가뭄대책 시설 3억원

무안군과 신안군에 재해예방사업비 10억원이 배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의원은 무안군 무안을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7억원, 신안군 증도면 등산지구 가

뭄대책 시설사업비 3억원 등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무안군은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으며, 특히 지난 7

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침수 171동, 아파트 지하상가 주차장 등 4개 단지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재해예방사업비 배정으로 무안읍의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적인 가뭄으로 고통받는 신안군 증도면 등산지구에도 가뭄대책비가 지원돼 40ha의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dong, Sangwul, Geomsan, Hanil, and Budeungsan.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wangnam Auction Company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featuring contact numbers and services.